

도시철도·공원개발 해법 찾는다

민선 7기 '광주혁신위' 첫 회의

이영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1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혁신위는 오는 7월 2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광주의 현안들을 점검해 해법을 제시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이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2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에 전문성 검증이 미비한 인사들이 포함되는데다 공인, 도시철도 등의 전문가는 배제되는 등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 당선인과 광주혁신위는 17일 오후 김윤수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7개 분과위원장,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공개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 당선인은 혁신위를 구성하면서 혁신성과 전문성을 감안했으며 분과위원장은 직접 그리고 분과위원은 혁신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등 주변의 추천을 통해 인선했다고 밝혔다. 23명 가운데 교수가 12명, 공직자 출

7개 분과 23명으로 구성

공약 이행 방안도 마련

혁신위 전문성 부족 지적도

신 3명, 관련 전문가 또는 업계 관계자 4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명 등이며, 여성은 5명이다.

시민주권 분과위는 박재영 현 광주대 부총장(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장학기 시 총무과장, 박수희 W하우정서비스(주)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전문 분과위는 김일태 전남대 교수가 위원장,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국장, 이기훈 GIST 교수가 위원을 맡았다.

문화관광체육 분과위는 주정민 전남대 교수가 위원장, 강신겸 전남대 교수, 이난경 광주여대 교수, 김홍남 조선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복지여성 분과위는 김경신 전남대 교수가 위원장, 이용교 광주대 교수, 강윤복 귀일정신요양원 사무국장 등

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환경교통안전 분과위는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위원장, 임영길 도시교통연구원장(보강건설ENG), 박기홍 GIST 교수, 변원섭 사립 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공동대표 등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도시재생분과위는 노경수 광주대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오세규 전남대 교수, 정은주 전남대 도시및지역개발학 박사 등이 위원으로 들어갔다. 민주인권평화 분과위는 송재형 전 광주전남민주연합 정책실장, 김재형 조선대 민주화운동연구원장 및 역사관장 등으로 일단 구성됐으며, 추후 남북교류 전문가 1인이 추가 인선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자신이 장관이나 청장으로 재직 시절 도입했던 온라인 희망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광주행복1번가'를 운영해 시민 불편 1000여건을 취임 100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7월 2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문가 17명 공약실천·현안점검

민선 7기 '전남도 기획단' 구성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은 민선 7기 취임 준비를 담당할 취임준비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대신 기획단에서 도정 현안 점검과 공약 구체화, 취임 준비 등 실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취임까지 2주일 밖에 남지 않은데다, 김 당선인이 전남도에서 사무관을 시작으로 행정부지사까지 지내 전남 현안과 문제, 장·단점 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무형으로 인수위를 꾸린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 단장은 제12대 전남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이진철 동산대 교수가 맡아 총무, 정책, 공보 등 10여명의 실무진과 함께 취임준비 전담을 총괄한다.

이와 별도로 외부 전문가 그룹의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당선인을 지원·보좌한다. 자문위원은 지방행정과 농업·수산, 문화·관광과 신재생에너지·R&D, 도시계획

실무형 취임준비단 꾸러

현장 활동가 함께 참여

도민 목소리 직접 들어

·환경, 복지·여성, 해양·조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온 17명이 위촉됐다. 자문위원장은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완식·김철신 전 전남도의회 의장은 자문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은 ▲강인호(조선대 교수, 지방행정) ▲강혜정(전남대 교수, 농업) ▲고재용(목포해양대 교수, 해양) ▲김미영(전남도립대 교수, 식품영양) ▲김병완(광주대 교수, 환경행정) ▲김영미(동신대 교수, 문화관광) ▲김재원(세한대 교수, 도시계획) ▲문재주(목포대 교수, 신에너지) ▲박종환(목포대 교수, 조선) ▲손승광(동신대 교수, 도시재생) ▲안기환(전남대 교수, 임업) ▲이가용

(순천대 교수, 농업경제) ▲이정복(전남대 교수, 지역개발) ▲조기안(조당대 교수, 환경보전) ▲최상덕(전남대 교수, 수산) ▲최진숙(순천제일대, 유아교육) 등이다.

김 당선인은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도정 업무보고 자리에는 자문위원들 외에 각 분야별 관련단체 등 현장 활동가들을 함께 참석하도록 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효율적인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도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문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 기획단 사무실이 마련된 무안 남악신도심 전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전체 회의를 열고, 활동계획과 일정 등을 확정한다. 자문위원회는 김 당선인의 취임 전 날인 6월30일까지 운영되며, 이후에는 고정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靑, 개각 카드·비서진 개편 주목 '포스트 6·13' 일부 장관 교체 전망

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청와대의 개각 카드와 비서진 개편이 주목받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유럽 순방 중 기자들과 만나 부분 개각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을 맞아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을 반영하고, 여권 전체의 '포스트 6·13 진용'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큰 폭은 아니더라도 일부 부처의 장관의 교체가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는 "개각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소폭 개각 및 일부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술술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 의원 재보선에서 11곳을 휩쓸며 의석수를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린 만큼 개각이 있을 경우 일부 의원이 입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사는 전남의 이개호 의원이다.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 의원이 지난 3월 전남지사 당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영록 전 장관에 후보 자리를 양보하면서 현재 공석인 농식품부 장관 자리를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현역 의원이기도 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 당대회에 출마한다면 이 의원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얼마 전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3선의 우원식 의원이 후임 장관 후보군에 포함되었다는 설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을 각각 지낸 전해철(재선) 의원과 박범계(재선) 의원은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우원식·전해철·박범계 의원 모두 오는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로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이라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외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장관 등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현역 의원이 후임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23일 러시아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8월 전당대회 등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나 개각의 가닥이 잡히지 않느냐는 전망이나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가시화되면서 비서관이나 행정관에 지역 인사들이 중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종석 비서실장과 장서정 정책실장이 전남과 광주출신이지만 청와대의 허리 격인 비서관에 지역 인사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당진항에 쌓인 라돈 매트리스 우체국이 직원 3만 명과 차량 3천200대를 동원해 전국에서 수거한 대전침대 매트리스가 17일 오전 11시 현재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충남 당진항 아적장으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해 작업이 중단중이다. /연합뉴스

평화, 바른미래 호남의원에 구애 손짓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로 혼란에 빠진 바른미래당 내 호남의원들에 대한 구애에 나서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조배숙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정동영 등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주선·김동철·권은희·주승용·김관영·최도자 등 이른바 '바른미래 호남 의원 6인방'과 영입을 위한 불발접촉을 하

고 있다"면서 "이용호·손금주 등 호남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의원들까지 대상"이라고 말했다.

평화당은 바른미래당 내용이 분열 사태로까지 치닫는다면 뿌리가 같은 호남의원들을 영입해 독자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을 것이라며 내심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마한가지이지만 보수야당에 비해서 내상이 덜한 만큼 이번 기회에 제3당으로서 오히려 몸집을 키워 독자생존을 모색한다는 희망이 쏠린다. 현재 의석수 14석의 평화당이 6석을 추가하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조배숙 대표는 "당 차원에서 바른미래 의원들의 결정을 일단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불발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평화당의 이런 움직임에 선을 그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평화당의 일방적인 러브콜로 보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접촉 대상 호남의원들도 바른미래당으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정체성 중심으로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고,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8~10% 가능

땅만 빌려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